

경남도, '밀양·창녕·하동'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역 이모저모

방산·모빌리티·이차전지 등 221만㎡ 규모 산업단지 신청 "특구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



경상남도청 본관

경상남도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221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지역은 밀양나노융합국가 산업단지, 창녕 대합·영남일반산업단지, 하동 대송산업단지 등 3 곳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재정 혜택과 근로자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차로 고성, 2차로 통영·창원 등 439만㎡를 지정받은 바 있다.

밀양 지구는 72만 8000㎡ 면적에 한국가보, 스페이스프로, 보광 등 13개 업체가 2027년까지 2797억원을 들

여 나노기술 복합소재와 방산소재·부품을 제조할 예정이다.

창녕 지구는 61만 7000㎡ 규모로 유템테크,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17개 회사가 2030년까지 448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항공기용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을 생산한다.

하동 지구는 86만 8000㎡에 엘엔에프 등 6개 기업이 2029년까지 8482억원을 투자해 수산화리튬 공장

과 폐이차전지 재활용 시설을 건설

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남의 기회발전특구 전체 면적은 660만㎡에 달해 도 상한선에 도달하게 됐다. 경남도는 산업부에 추가로 660만㎡ 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방 소멸 대응과 동부·서부권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특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경남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구 신청을 위해 도는 시군과 함께 주요 선도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군 특구계획 수립용역 검토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구 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자료 보완과 산업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현장 컨설팅과 실무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에서 신청 가능한 최대면적인 660만㎡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쉽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없게 대응해 이번에 신청한 3개 지구 모두 특구로 지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전남도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와 함께 9월30일까지 1년 동안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는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 정보 부족에 따른 시기별 물량 확보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입주했고, 벼와 보리 등을 제외한 과수·채소류 3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중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산청군 산불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청군은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에 따른 예약취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총 55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천면, 삼장면, 단성면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지난달 3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농어촌형 조성 사업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포항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침수예측 등 체감형 서비스 구축 7가지 대국민 서비스 연내 제공

경북도와 포항시가 올해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사업은 다양한 '디지털 트윈'(가상 구현) 서비스를 도시 단위에 집약·연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지난해 농어촌형 시범 구역에 선정돼 구룡포와 호미곶 일대 350만평(약 11.57km²)을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해 대기오염, 해양생태계 분석, 선박 안전, 노후선박 탄소배출 관리 등 4종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는 이들 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예측 및 대응, 방파제 보행자 이동 예측 및 경보, 수산물 유통 정보화 서비스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3종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개발된 이들 7가지 대국민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천시, 베트남 수출상담회 895만 弗 계약

'우수상품 판촉 행사' 현지 호응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룯데마트에서 개최한 '2025년 경북 영천시 우수상품 판촉 행사'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영천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베트남 현지에 홍보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한국 교민은 물론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29일 열린 베트남 수출상담회에서는 18건, 89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에서의 20건, 1295만 달러와 합쳐 총 38건, 219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성과를 올린 것이다.

시는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호치민 한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도내 수산식품기업 수출 지원

8개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90만 弗 수출의향 협약 체결

경남도는 도내 수산식품수출기업 8개사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약 290만 달러의 수출의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8개사는 박람회에서 굴, 봉장어, 김, 해조류 등 각종 수산물로 만든 수산 식품 15종을 선보였다. 시식 행사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경남 수산식품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해외바이어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박람회에 이어 가공무역 확대와 고부가가치 수출 전략 마련을 위해 현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찾기도 했다.

또한 수협중앙회 방콕무역지원센



경남도와 도내 수산식품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수협중앙회 방콕무역지원센터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터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방콕지사를 찾아가 수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경남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출지원기관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실질적 수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 놀러오세요"

구례군 '3정·3색' 주제... 7일까지

구례군에서 정원과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3정3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난달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민간정원 3곳(쌍산재, 천개의 향나무숲, 반아원)에서 '2025 전라남도 민간정원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 개최지는 모두 '2024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나란히 선정된 명소다. 구례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 내 모든 민간정원이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3정·3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타는 각각의 정원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쌍산재'는 300년 고택의 멋과 전통 정원의 정취를, '천개의 향나무숲'은 1,000그루의 향나무와 목서·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반아원'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 숲, 청량한 연못이 어우러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정원의 개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진행된다. 다과와 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정원 소품 만들기, 시화 및 미술 전시회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구례(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시 염색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업단)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염색산업단은 단지별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특화단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인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혁신활동 등을 지원한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염색산업단은 중장기 고도화를 위한 혁신형 특화단지 사업에 연간 약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김준한 기자

부산지방보훈청 '이달의 현충시설' 수영구 '6.25참전 호국영웅기념비'

부산지방보훈청은 6월 이달의 현충시설로 수영구 남천동 삼지공원에 있는 6.25참전 호국영웅기념비(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념비는 부산 수영구 출신 6.25전쟁 참전유공자 1247명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2018년 7월 건립됐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리고 전후 세대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조성된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은 현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이달의 현충시설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